## 유통브랜드 '화순팜' 매출 목표 조기 달성 '52억원 돌파'

전국 최초 B2B2C 융합형 공공 쇼핑몰…상생 유통혁신 브랜드 경쟁력 전국 단위 확대…연말까지 60억원 전망

화순군이 지역 대표 농·특산물 유통브 으로 전망된다. 랜드 '화순팜'이 올해 목표로 내세웠던 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B2B2C(기업·소 출 50억원을 조기 달성했다.

매출액은 10월말 기준 52억원을 기록했 중심 유통혁신을 동시에 이끌며 주목받고

이는 올해 목표로 내세웠던 50억원을 조 근은 올해 초부터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 기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로 지신뢰 확보를 목표로 소비자 맞춤형 유

비자·플랫폼) 융합형 공공 쇼핑몰 모델을 9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팜의 올해 도입한 화순군은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화순군 '화순팜'이 올해 목표로 내세웠던 매출 50억원을 조기 달성했다.

실제로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맞 동구매·기획세트를 선보였다. 이어질 경우 연말에는 60억원을 넘어설 것 통채널 구축과 화순팜 시스템 개편을 추진 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기업・

이를 통해 '농민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선택을' 제공했다.

e-선물카드'도입해 지역화폐와 디지털 적과 온라인 유통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 소비가 연계되는 새로운 상생 소비문화를 이다. 구축했다.

활력을 제공했고, 화순팜의 폭발적 성장세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로 이어졌다.

단체 대상 대량구매 전용 채널과 SNS 공 지속적인 상품 품질 향상과 마케팅 확대 리 농산물을 자랑스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로 전국 단위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게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성괴를 발판으로 연말까지 또 화순사랑상품권 간편결제와 '화순팜 6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신규 판로 개

또 화순팜을 중심으로 농가•기업•군민 이 같은 노력이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 이 함께 웃는 상생 경제 구조를 확대해 '농 를, 군민에게는 신뢰와 혜택을, 지역에는 업이 살아있는 디지털 유통 도시, 화순'을

구복규 군수는 "회순팎의 성과는 농민 이를 통해 화순팜은 공공 쇼핑몰임에 과 군민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라며 "농민 도 민간 수준의 기획력과 유연성을 갖춰 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군민이 우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최근 국제자매도시인 오스트리아 린츠시 대표 예술학교인 아달베르트 슈티프터 김나지움 교장단 일행이 광양시를 방문. 양 도시 간 예술·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광양시-오스트리아 린츠시, 국제교류 확대

·린츠시 예술학교 일행 광양 방문…예술·문화 교류 활성화

광양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오스트리아 린츠시 예술학교 교장단 일행이 광양시를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제자매도시인 실천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오스트리아 린츠시 대표 예술학교인 아달 베르트 슈티프터 김나지움 교장단 일행이 시를 방문, 양 도시 간 예술 문화 교류 활 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스트리아 린츠시에 위치한 예술중심 고등 학교로 음악과 미술 중심의 예술교육을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의 일환 으로 시를 방문한 이들은 학생 15명과 함 께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광양시에 체류 하면서 한국창의예술 중·고등학교 학생들

과 홈스테이를 하며 음악, 미술수업, 합동 공연과 전시회,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7일에는 5명 '아달베르트 슈티프터 김나지움'은 오 의 교장과 교사로 이뤄진 방문단 일행이 시청을 방문해 정인화 시장과 면담하고 예 술·문화 교류 등의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 으며 특히 한국창의예술중・고등학교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시 학생들의 광양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 한다"며 "이번 홈스테이 교류를 통해 두

도시 청소년이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우 정을 쌓길 바라고 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린츠시 예술학교 방문에 앞서 광양에 소재한 광양 창의예술고 학생 20여명은 지난해 10월 린츠시를 방문, 홈스테이 프 로그램에 참여했다.

창의 예술고와 린츠 아달베르트 슈티프 터 고등학교 간 홈스테이 교류활동은 지 난 2023년 9월 정인화 시장이 자매도시 린츠시를 방문, 예술·문화 교류협력 정인화 시장은 "유럽의 문화수도 린츠 MOU를 체결 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 영광, 월곡·칠곡·항월항 100억원 투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생활 인프라 등 개선

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사업에 영광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2026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 100억원(국비 70억원·지방비 30억 원)을 투입, 홍농읍 월곡·칠곡·항월 홍농읍 월곡·칠곡·항월항이 최종 선 항 일대의 낙후된 어항시설과 생활 기 반 시설을 개선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 앞으로 방파제와 물양장 확보, 부잔 지역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교설치, 어구창고 신설 등 어촌의 생 신규 인력의 어촌 정착을 유도해 어촌 활 인프라 확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장세일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 군은 공모 준비 단계부터 지역 주민 전은 지역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이 중심이 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 낸 성과다"며 "월곡·칠곡·항월항 일 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주 대를 중심으로 어촌의 생활 여건을 획 민 참여형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해 최 기적으로 개선하고,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

## 담양, 상수도 확충사업 142억원 투입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대

담양군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수 돗물 공급을 위한 2026년도 상수도 확충 신규사업 3건에 총 14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는 담양읍 학동리 예술인마 을과 창평면 외동리·광덕리·유곡리·장화 리, 가사문학면 연천리・경상리・지곡리・ 봉암리・가암리・인암리・무동리. 대덕면

입석리 등이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지방 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컸 던 곳이다.

현재 담양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5%로, 군은 오는 2030년까지 93% 달성 을 목표로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지속 추 진하고 있다.

이번 신규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수 고갈 과 수질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 에게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